

# 연간 모돈 이유두수 향상을 위한 관리



최 병 남 차장  
(상원축산)

우리 양돈인들은 수입개방 및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사료비부담의 증가, 인력부족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과학적 경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생산성 향상의 절대요건은 연간모돈 이유두수(이하 PSY)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은 양돈인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나, PSY의 1<sup>차</sup>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도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PSY = \text{회전율} \times \text{복당이유자돈수}$$

$$= \frac{365 - \text{비생산일수(휴양일수)}}{\text{임신일수} + \text{포유일수}} \times \text{복당이유자돈수}$$

PSY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은 휴양일수, 포유일수, 생사사고율, 포유중사사고율, 총산자수, 관리자의 노력등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PSY 향상방법에 관하여 말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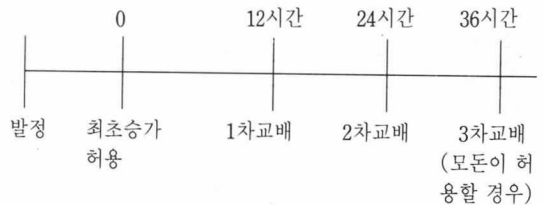
## 1. 후보돈 관리

과거와 달리 대단히 개량된 오늘날의 후보돈은 연산성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PSY를 24<sup>마</sup>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건한 상태로써의 관리 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체지방이 적은 후보돈의 경우 구입시점에서 2~4주 가량의 영양급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동 및 환경의 변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보돈은 질병에 노

출되기 쉬우므로 고에너지 사료(젓먹이 or 포유돈사료)의 급여로 체력을 보강시켜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후 170일령 이후에는 일당 30분정도 웅돈의 접촉과정을 통하여 후보돈을 성적으로 성숙시켜주며 이 시기의 조명(300Lux/일 18시간 점등)도 성성숙에 영향을 끼친다.

후보돈의 교배시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있던 도식적인 일령 및 체중 한계에서 벗어나 체지방이 극히적은 모돈의 경우에는 135kg 이상에서 교배시키며 정상적인 체지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0kg 이상에서 교배시키는 등 탄력적인 조정이 연산성을 보장한다.

<표> 적절한 교배시간



교배후 후보돈의 착상시기(교배~28일령)는 절대안정과 에너지의 제한적 공급은 산자수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사료급여량은 임신전기(교배~28일령)에는 1일 7500kal/DE으로 제한하여 급여하여야 하며 임신중기 이후에도 체지방이 적은 후보돈들은 포유돈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 2. 경산돈 관리

경산돈의 관리는 산차관리에 그 기본이 있으며 산차관리는 후보돈 교배 및 후보임신돈의 관리, 분만시점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산차구성의 관리는 PSY에 큰 영향을 끼친다.(산차는 자돈면역에도 영향을 끼침)

위의 내용중 분만시점 이후의 관리가 경산돈 관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만시는 난산 또는 산과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모돈의 경우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적기이므로 이 시기에의 적절한 처치는 매우 중요하다.(일반적으로 카도마이오셀, 암피실린 제제가 매우 효과적임)

포유모돈의 체형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며 체형은 곧 다음 산차의 성적을 표시하는 지표이라는 생각하에 이유시 체평점 2<sup>5</sup>~3<sup>0</sup>을 유지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는 농장에서는 분만 17~23일령에 이유시키며 체형유지를 위하여 이유 7일전에 사료 조절을 시작한다. 이유시의 적당한 체형은 재귀발정을 앞당겨 모돈 휴양일수를 줄여 회전율을 높이며 이것은 PSY 향상과 곧바로 연결된다.

교배후 경산돈은 임신전기의 영양급여(1일 70 00Kcal 이하)가 매우 중요하며 산자수는 이 시기에 90% 이상이 결정되며, 임신전기에 있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재발정의 확인은 모돈의 PSY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임신 여부의 진단은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이용할 경우 교배 20일 이후에는 가능하며 외음부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95% 이상 진단이 가능하다.

이때 숙련된 교배담당자가 관리하여 임신돈의 가발정등을 구분할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성적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임신중기의 사료급여량은 모돈의 체형에 따라 가감급여하여야 하며(일평균 10,000Kcal) 임신중기에서의 과다한 사료급여는 무유증·저유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임신 말기에는 포유돈 사료를 급여하여야 하며(분만전 14일간) 만약 체지방이 적은 모돈이라면 4~5일정도 기간을 늘려야 한다.

## 3. 자돈

포유자돈 관리에 있어서 처음 3일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이유자돈의 마리수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전 폐사의 40% 이상이 이 시기에 발생하며 이중 압사와 아사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중 압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어느정도 막을 수 있으며, 아사의 경우는 분만시 허약돈의 경우 신속한 포유와 병행하여 조산시 복강을 통한 영양소 공급도 효과가 있다. 포유자돈의 육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를 통한 자돈의 전·출입이 매우 중요하며 양자시기는 초유급여 후 실시하는 것이 허약돈의 체액 손실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자돈의 경우 5kg이 넘는자돈은 어느 시기에 이유시키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포유중인 자돈이나 모돈에 유익하고, 허약돈의 포유기회와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2주령 이상의 건강한 자돈이 모돈의 유질변화에 의하여 설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이유가 오히려 자돈의 지사및 육성에 도움이 된다.

## 4. 멧음말

PSY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개발 및 투자와 관리인력의 안정이 매우 필요하다. 인력의 안정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루어지며 기록 등 관리의 맥이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비육돈 농장에서는 양호한 산차구성과 더불어 생산 품종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모돈의 혈통을 단순하게 조성하고 적정모돈갱신을 통한(이유시 성적도태실시)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면 PSY 24두의 달성이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